

□ 국내 최초 승진성차별 법정투쟁 김두선씨

“여성도 이젠 목소리내야”

김미경 기자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경남 사천시 삼천포 신용협동조합 과장이었던 김두선(39)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기록될 ‘승진 인사의 성차별 여부’를 둘러싼 법적 싸움을 몇달째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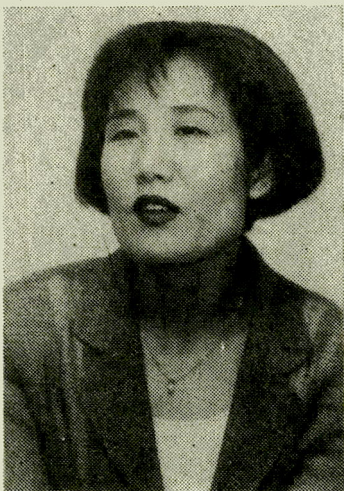
“승진 안 시켜줬다고 회사를 전국적으로 망신시키는 여자가 어디 있는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인사에서의 성차별 여부를 법적으로 분명히 가려보는 작업은 앞으로 후배들의 승진 기회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지난 81년 삼천포 신용협동조합에 입사해 88년 대리, 93년 과장으로 승진했던 김씨는 말 그대로 ‘일만 아는’ 무난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입사 4년 후배 일 뿐 아니라 당시 과장서리였던 남자 후배가 김씨를 제치고 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은 뒤흔들기 시작했다.

“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과장 실무를 해야 한다는 회사의 관례도 갓 인사였습니다. 처음엔 너무 부당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 판정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30일 진주지방법노동사무소에 낸 김씨의 진정서에 대해 사무



소쪽은 지난 3월 성차별 인사로 판단해, 회사쪽에 3월30일까지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쪽은 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5월10일 김씨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씨와 진주지방노동사무소는 각각 지난 6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 대표를 고발한 상태다.

“성차별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간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그냥 참아왔기 때문이겠죠. 이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씨의 힘찬 다짐이다.